

익산시, 취약층 난방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9409가구 지원... 전년 대비 23% 증가

익산시가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난방비는 물론 읍면동 자원을 활용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30일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등유 바우처, 연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존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까지 확대돼 9,409가구가 지원받게 됐다. 이는 전년 7,213 가구

대비 약 23% 증가한 수치다.

지원 금액도 확대돼 1인 세대는 15만 3,700원, 4인 이상 세대 38만5,300원으로 각각 30%, 45% 늘었다.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장에 지원되는 등유 바우처는 가구 당 33만원 증가한 64만원, 연탄은 가구 당 54만원 규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지난해 총 424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했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자 121가구를 발굴했으며 4,200여민원을 투

입해 연탄과 가스 난방용품 등을 지원했다.

이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과 기탁금 등을 투입해 303가구에 8,400여민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100여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 외에도 시 재원을 활용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야간관광 활성화 및 체류객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성장을 돕는 관광도시로 도약한다.

'빛의 도시 익산' 거듭나

야간경제관광 정책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야간관광 활성화 및 체류객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성장을 돕는 관광도시로 도약한다.

시는 지난 27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시관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야간경제 및 관광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잠들지 않는 도시, 해가 지면 새로운 관광이 펼쳐지는 도시로 변모시켜 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빛의 도시 익산'으로 대한민국 야간관광 대표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해 익산역과 근현대문화자원, 마루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역사문화자원을 아우를 수 있는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마루사지·왕궁 등의 백제문화 관광지에 AR·홀로그램 등의 최

첨단 산업이 융복합된 익산만의 야간 문화콘텐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동공원, 보석테마관광지, 웅포관광지 등 익산의 주요 관광지에 야간 콘텐츠 확대와 야행 컨셉 강화를 위한 나이트 버스투어 등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야간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상권 활성화,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 이동편의 개선, 야간관광마케팅에 주력하고 연계사업도 발굴해 나간 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익산 야간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빛의 도시 익산'으로 거듭나 지역을 찾는 체류객 확대를 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원도심 신(新)야간경제·관광지로 육성"

정현을 익산시장, 복합환승센터·도시재생·문화재 정비 등 연계해 활성화 달성

정현을 익산시장이 원도심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연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경제·관광지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정비를 통한 관광명소 조성, 문화도시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도심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한 TF팀 점검과 사업 추진 시 모든 상황을 공유할 것도 거듭 당부했다.

정 시장은 "원도심 일원을 교통과 산업 기반이 어우러진 호남 최대 경제거점 조성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와 환승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도심 일원에는 음식·식품교육문화원과 중매서커뮤·티라운지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어 도시재생과 근대역사 문화재를

정 시장은 3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현재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각 사업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계해 경제관광 활성화라는 최종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 시장은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와 도시재생, 근대역사 문화재

정비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도심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한 TF팀 점검과 사업 추진 시 모든 상황을 공유할 것도 거듭 당부했다.

정 시장은 "원도심 일원을 교통과 산업 기반이 어우러진 호남 최대 경제거점 조성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와 환승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도심 일원에는 음식·식품교육문화원과 중매서커뮤·티라운지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어 도시재생과 근대역사 문화재를

정비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도심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한 TF팀 점검과 사업 추진 시 모든 상황을 공유할 것도 거듭 당부했다.

정 시장은 "원도심 일원을 교통과 산업 기반이 어우러진 호남 최대 경제거점 조성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와 환승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도심 일원에는 음식·식품교육문화원과 중매서커뮤·티라운지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어 도시재생과 근대역사 문화재를

군산시, 어민공익수당 신청·접수

군산시는 30일 어민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활동 과정에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대상은 2년이상 계속해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계속해 등록(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면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급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치·과태료 처분, 농민공익수당 수령, 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자실위원회를 통해거나 개별어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어민공익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는 30일 2023년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개 사업에 대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하는 15개 사업은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사업을 비롯,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노인맞춤형운동(수중, 마루), 장애인보조기기렌탈, EYE1004건강푸드림, 정신건강토달케어, 청소년비전형성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스포츠활동건

군산시, 상반기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 모집

군산시는 30일 2023년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개 사업에 대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하는 15개 사업은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사업을 비롯,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노인맞춤형운동(수중, 마루), 장애인보조기기렌탈, EYE1004건강푸드림, 정신건강토달케어, 청소년비전형성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스포츠활동건

강관리, 노인문화여가토달, 청소년재활성매지원, 글로벌마인드형성, 성인심리지원, 노인맞춤형주거관리 등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며, 각 서비스별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각 사업별 선정기준이 상이하나 기준중위소득 120%~160%이하로 연령, 가구특성 등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서비스별 기준정보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이용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여성 1인점포 안심벨사업 개시

군산시는 30일 여성 1인 점포에 안심벨을 지원해 여성들이 마음 놓고 거주하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에 공모해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설치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여성 혼자 운영하는 점포를 모집했으며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 선정된 77개소에 CCTV와 안심벨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했다.

안심벨 사업은 여성 혼자 일하는 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긴급상황 시 안심벨을 작동하면 경비업체에서 점포에 출동, 위급상황 대처 및 경찰서, 119에 비상연락 조치 등 안전대응 골든타임 확보하는 서비스로 여성들의 불안 감소와 범죄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제8기 소셜 미디어기자단 발대식

익산의 곳곳을 누비며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할 익산시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은 전국 각지에서 선정된 제8기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참석해 위촉장 전달 기자회견 활동 교육, 1년 동안 함께 활동할 기자단 서로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향후 익산시의 다양한 소식, 명소, 맛집, 문화관광, 축제, 주요 정책 등을 소개해 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로 제8기를 맞는 익산시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총 75명이 지원하였으며, 관련 경력 및 소셜미디어 운영 사항, 연령대를 고려하여 일반기자 20명, SNS기자 5명, 영상기자 5명로 구성된 총 30명의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최종 선정했다. /익산=이재훈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